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뜻 모아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설립 건의안 채택 태권도 위상 정립·국가 경쟁력 강화 위해

무주군이 나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안이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지지를 얻으며 든든한 추진동력을 갖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해당 안은 지난 25일 김제시에서 열린 민선 7기 3차년도 제2차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에서 건의문으로 채택돼 청와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각 정당에 전달됐다.

'태권도는 한민족의 긍지를 심어주는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건의문에는 ▲태권도가 한류의 원조인 이유를 비롯해 ▲태권도원 조성, 100대 국정과제로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선정, 태권도 국가 지정, 태권도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3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태권도의 국내·외적 위상,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황숙주 회장(순창군수)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자 올림픽 정식종목이면서 전 세계 210개국 1억5,000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한류의 원조 태권도는 국가가 나서 지키고 대한민국 대표 문화브랜드로 육성해야 하는 자산"이라면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무주와 전북을 넘어 국가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데 전북 14개 시·군이 함께 뜻을 모은 만큼 앞으로 국민 공감을 얻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아우르는 국제 사범을 양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이날 건의문 채택을 제안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 세계에서 입학생을 모집하고 졸업생에게는 태권도 국제사범 자격을 주는 국립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국익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자 21세기 문화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해 가는데 필요한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온·오프라인)을 추진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은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 이하 세태연), 국기원(원장 이동섭)과도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3.31. 업무협약 예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장용갑) 등 태권도 관련 단체들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태권도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간다는 계획이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를 위한 전자서명은 무주군청 홈페이지 팝업창과 국기원과 전북도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가능하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은 현재 '전라북도 2022년 국가예산 100대 중점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해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위상 유지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필요, ▲태권도 교육을 통한 전문인 양성에 대한 요구 부각, ▲태권도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식목일을 열흘가량 앞둔 지난 26일 장수군 용계리에서 장영수 장수군수(가운데)와 문민섭 산림과장(오른쪽), 한상대 장수군 산림조합장이 아토피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편백나무를 심고 있다.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장수군, 편백나무 1500그루 식재·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전개

장수군은 지난 26일 장수읍 용계리 산11-1번지 일원에서 장영수 군수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6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및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식목일 보다 앞당겨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산림청의 주요 조림수종이자 피톤치드를 다량 함유해 아토피 치료나 스트레스 완화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편백나무 1,500그루를 식재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지난 2011~2019년 까지 장수군에서 펼쳐온 식목일 기념 행사 및 전북소방본부 화재 사진 등 40여점을 전시해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 예방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오후에는 각 실·과별 공무원들은

담당 마을에서 논두렁밭두렁 태우기와 영농 부산물 등 불법 소각 금지 및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이밖에도 군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올해 220ha의 면적에 경제수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산림의 중요성과 소중함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나무를 소중하게 가꾸고 조성하여 경제적·공익적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인 장수군의 산림 자원 보호 및 청정 장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농기센터, 영농 소식지 '들녘소리' 발간 눈길

무주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에게 농업 정보를 담은 소식지 '들녘소리' 창간호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쪽 분량의 갈라 소식지로 농업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담아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에게 '달토란' 영농 소식을 재운 점이 특징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창간호 '들녘소리'를 통해 반딧불 농업대학,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 개관,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오픈, 과수화상병 예방, 봄철 서리피해 방제 요령,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과학영농을 위한 토양검정 등을 알기쉽게 설명을 곁들였다. 이외에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비롯한 퇴비 부숙도 측정, 농업기계 임대 절차 및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지침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수록, 책자 마지막 부분에는 과수 품목별 재배 월력이 담겨 있으며 무주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생육단계 및 주요 농작업 정보가 자세하게 소개 돼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K급 소화기, 주방화재 진압 효과적"

진안소방서, 비치 홍보 추진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지난 26일 주방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K급 소화기 비치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방을 의미하는 키친(Kitchen)에서 앞 글자를 따서 지은 주방용 소화기(K급)는 식용유 화재 등에 적합한 소화기로, 기름 표면에 순간적인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낮춰 재 발화를 막을 수 있어 주방화재에 효과적이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행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실제로 주방화재에서 K급소화기의 효과를 입증하는 관내 화재가 있었다.

지난 24일 오전 7시경 진안휴게소 직원인 김창섭(남, 47)씨는 당일 영업준비를 위해 튀김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중 식당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확인한바 튀김기에서

불꽃 및 연기가 치솟고 있어 신속히 1차로 일반소화기로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반소화기는 진압에 효과가 없어 다시 K급소화기를 찾아 재차 화재진압을 시도 후 빠르게 119에 신고했다고 한다. 김 씨는 화재진압 시도 후 소방서 직원의 대피지시에 따라 기술사직원들과 함께 휴게소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했다. 소방대원이 도착해 당시 자체진압 상태 확인, 안전 조치와, 화재조사 실시하고 현장조사 한바 피해는 주방용기 튀김기 상부에 약간의 그을음 피해만 있었다. 김씨의 빠른 대응으로 자칫하면 휴게소 전체에 큰불로 번질 수 있는 것을 잘 대처하여 인명, 재산피해를 막았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정보조사·합동소방훈련 등 다중이용업소 방문 시 팝업 및 전담 및 전광판을 활용 등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오정철 서장은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 진압에 매우 효과적이다"며, "K급소화기를 비치해 안전한 주방 만들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국숲사랑총연합회 전북지회, 숲길만들기 식목행사

한국숲사랑총연합회 전북지회(총재 박태홍)는 지난 26일 진안군 진안을 천지농원에서 숲길만들기 식목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76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한국숲사랑총연합회 숲사랑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개최했으며 전춘성 진안군수, 김광수 군의장, 이송암 숲사랑 총연합회 중앙회 총재 및 회원 등 80명이 참석했다.

숲사랑총연합회 회원 등은 이날 나무심기행사로 체리나무 100주, 팜파스 그라스 1만주를 심는 등 방문 체험객이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며 산의 혜택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숲사랑총연합회는 2018년 창립하여 숲을 깨끗하고 아

름답게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을 지키고 아끼는 활동을 펼치는 자발적 범시민운동 단체이다. 이 단체는 현장 활동으로 산불, 불법산림훼손, 오물 투기 등에 대한 예방과 감시를 하고 희귀식물 보호 및 산행문화 선도 활동을 하며 인터넷을 통한 정책 건의 및 여론형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답답함이 많이 쌓이는 요즘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산의 중요성이 새삼 더 느껴진다"며 "숲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 노력을 하는 숲사랑총연합회 전북지회 회원분들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군 귀농귀촌 협의회와 간담회

무주군은 지난 26일 농민회 집 소회의실에서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김진섭 회장과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귀농·귀촌 당사자로서 느끼는 고충을 이야기하고 무주군민으로서 지역과 이웃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김진섭 회장은 "귀농·귀촌인들이 다수가 무주가 좋아서 찾아온 사람들인 만큼 무주군민으로 정착해 살아가려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며 "무주군도 현실을 반영한 귀농·귀촌 정책을 마련해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무주군이 직면한 인구문제 해결에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연간 6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귀농귀촌 유치 지원, ▲농가주택 수리 지원,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건축설계비 지원, ▲귀농인 임시 거주지 임대료 지원, ▲집들이 비용 지원,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및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용담면 주민자치위원회, 하천정화활동 나서

진안군 용담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정례)는 지난 26일 용담면사무소와 연계하여 깨끗한 용담호 주변을 만들기 위해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용담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농번기의 시작으로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끗한 용담호를 유지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했다.

용담면 주민자치위원회원들은 용담댐 주변 및 방화천 주변 생활쓰레기 수거와 더불어 작년 여름 폭우로 인해 떠내려 온 잔여 쓰레기 제거에도 적극 나서 용담호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